

## 3김정치 전후 한국정치의 비판적 검토: 정치적 효과와 왜곡

정태일 충북대학교

---

### 논문요약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중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주제어** : 3김정치, 정당구도, 정권교체, 정당수명, 정치이념

## I. 서론

한국정치는 정당이나 정책보다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로 인해 국민선택이 지속적으로 왜곡되었다. 한국정치는 광복 이후 서구적 민주정치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승만에 의해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고착화되었다. 이것은 한국정치가 정책이나 이념을 근간으로 국민선택을 중시하는 정치환경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어 서구적 민주주의가 한국정치에 도입되는 과정부터 왜곡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승만 정부가 헌법개정 등으로 장기집권을 도모하자 1960년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을 통해 한국정치의 왜곡현상을 청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면 정부의 실정과 1961년 박정희 정부의 등장,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피살과 1980년 전두환 정부의 등장 등은 한국정치가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한국정치는 크게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에서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은 1980년에 7년 단임대통령제와 1987년에 5년 단임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80년과 1987년 단임대통령제의 채택은 민주화 이전 한국정치의 병폐로 인식된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인식시켰지만 2003년 2월 24일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한국정치는 권위주의적 정치가 되도록 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3김정치가 있었다.

3김정치는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인식된다. 3김정치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에 의해 한국정치가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정당통합과 정책연합을 도모하다보니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민주화 이전까지 김대중과 김영삼에 구축된 양김정치는 보수정권에 대항하는 진보정치세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켰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전개된 3김정치는 정권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통해 상반된 정치이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합집산과 갈등분열을 지속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시켰다. 이렇듯 한국정치에서 3김정치는 양김정치를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독자생존을 위해 정당창당, 정당통합 및 정당연합, 지역에 기반한 정치세력 구축 등 한국정치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3김정치에 대한 논의가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되어 3김정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초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3김정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정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3김정치에 나타난 한국정치의 정치적 효과와 왜곡을 3김정치 이전과 이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한국정치를 3김정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김정치 이전과 전후의 국회의원선거결과와 대통령선거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치변화 요인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 II.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한계

한국정치에서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는 비판의 대상이다. 한국정치는 건국과정에서 이승만 등과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한 세력, 박헌영 등과 같이 사회주의를 학습한 세력, 김구 등과 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세력들이 주도하여 서구적 민주정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정치가 정치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한국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강한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 장기집권이 가능하였지만 민주화 이후 헌법장치로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2003년 김대중 정부까지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로 인식될 수 있는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지속되었다.

3김정치는 양김정치(김대중, 김영삼)에 김종필이 합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양김정치는 1969년 11월 8일에 당시 원내총무인 김영삼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주장하면서 1971년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를 발표하자, 김대중 의원도 1970년 1월 24일에 이에 동참하였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40대 기수론’에 기반한 대통령 후보경선은 김대중의 승리로 일단락되었지만 양김이 한국정치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김정치는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실패하였지만 동년 5월 25일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이 44.4%를 득표하여 48.8%를 얻은 민주공화당에게 집권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양김정치가 1971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한국정치에 변화를 몰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집권위기에 직면한 박정희 정부가 1972년에 유신체제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양김정치는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정치적 암흑기를 맞이하였다(정주신, 2017b).

먼저, 김대중은 1972년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이 도모되자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신반대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73년의 김대중 납치사건, 1976년의 ‘명동 3.1민주구국선언’으로 구속되어 1978년 12월 27일에 가택연금을 당하였다. 김대중은 1979년 10.26사건으로 동년 12월 8일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신민당에 재입당을 시도했지만 김영삼 총재의 반대로 포기하였다. 김대중은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가 조작한 내란음모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 1980년 12월에 20년으로 감형과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도미하였다. 이후 김대중은 1985년 2월 귀국해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에 취임하고, 1987년 4월까지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6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으며, 7월 9일에 사면·복권되자 7월 17일에 대통령 불출마선언을 번복해 양김의 정치적 균열이 발생하였다(김용철 외 2018).

한편 김영삼도 유신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와중에 1979년 ‘YH무역사건’과 9월 16일자 ‘뉴욕 타임스’ 회견문으로 신민당 총재직,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가택연금을 당하였다. 김영삼은 1979년 10.26

사건 이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대권행보를 추진하였으나 1980년 5월 17일에 신군부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다. 김영삼은 1981년 5월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후 ‘민주산악회’를 출범시켜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3년에는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조직하고, 1984년에는 김대중과 ‘신한민주당’을 창당한 후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한 후 대통령 직선제개헌을 주장하였다. 김영삼은 1987년 4.13호헌이 선언되자 ‘신한민주당’을 탈당한 후 김대중과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6.29선언을 이끌어 냈지만 대통령후보 단일화 문제로 김대중과 결별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종필은 양김(김대중, 김영삼)과 달리 1961년 5.16쿠데타로 박정희 정부에서 제2인자로 머물렀으나 1979년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민주공화당’ 총재로 복귀하여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몰려 정계를 은퇴하였지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6.29선언으로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제13대 대통령후보에 출마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위에서 보는 것처럼 3김정치는 한국정치사,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양김(김대중, 김영삼)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까지 화합과 분열을 거치면서 성장하였으나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구하였다. 김종필도 박정희 정부의 2인자로 부침을 겪고, 전두환 집권세력의 견제를 받았지만 양김처럼 1987년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구축하였다. 이에 3김정치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2003년 김대중 정부가 끝날 때까지 정치·전략적 판단에 따라 연대하고, 분열하면서 한국정치를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김정치 자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성과는 크게 미흡한 형편이다.<sup>1)</sup> 한국에서 3김정치 자체로서 분석된 학술논문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반

1) 3김정치에 대해 학술지서로는 임혁백(2011), 김용욱(2004), 김영명(2008) 등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3김정치,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정권을 창출한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면에 3김정치에 해당되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연합한 이후 정당구도와 대선결과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sup>2)</sup> 이렇게 볼 때 3김정치에 대한 학술논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첫째, 3김정치에 의해 출범한 정부분석이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분석은 정치개혁에 대한 분석이 중심주제로 정태환(2005), 임성한(1998), 김태룡(1998) 등이 있다. 정태환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치가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기득권의 저항으로 후퇴했다고 보았으며, 임성한은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법은 혁명적인 것이지만 성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김태룡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정당개혁은 정당역할의 실종과 정당능력의 낮은 제도화로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분석은 개혁정치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민준기(2007), 송백석(2006), 정태환(2009) 등이 있다. 민준기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양산한 IMF식의 구조조정과 여당의 안정의식 확보에 치중한 정치개혁 그리고 남남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송백석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은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되었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을 견지하였다고 보았다. 정태환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치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에도 국민적 지지확보에 실패한 것은 분점정부라는 제도적 특성과 지역연합정부라는 정치동학적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둘째, 3김정치에 의한 정당구도의 변화이다. 김영삼과 관련된 정당구도에 대한 연구는 강원택(2012), 정관용(1990) 등이 있다. 강원택은 3당 합당은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졌지만 정치적으로 호남 대 비호남에 따른 지역구도의 강화와 보수 대 진보의 이념적 속성의 강화를 유발하였다. 정관용은 3당합당은 국민적 요구보다 정치권의 권력장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김대중과 관련된 정당구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호(2004) 등이 있는데, 현재호는 민

2) 3김정치에서 김종필은 독자적인 정권창출에 실패한 결과 김종필에 대한 학술적 분석은 없고, 3당합당과 DJP연합 속에서 분석되는 한계가 있다.

주화 이후 정당연합의 형태인 DJP연합을 통해 정당정치의 특징과 성격, 정당정치의 변화·지속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3김정치에 의한 대통령선거결과와 변화이다. 김영삼과 관련된 대통령선거에 대한 연구는 정영국(1993), 김성식(1992) 등이 있다. 정영국은 지역적 제1차적 연고는 특정후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책지향적 선거전략이 부각되기 어렵게 한다고 보아 김영삼-김종필의 민주자유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분석하였다. 김성식은 제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어 민간정부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간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김대중과 관련된 대통령선거에 대한 연구는 정진만·황아란(1999), 조현연(1997) 등이 있다. 정진만·황아란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제1야당의 보수화 전략은 전진세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보았다. 조현연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김에 근거한 정당구도와 선거전략이 DJP연합을 가능하게 하여 대선승패요인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였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정치에서 3김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김정치에 대한 분석은 정권창출과정과 각각의 정부가 추진한 개혁정책, 선거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효과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왜곡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 Ⅲ. 3김정치의 정치적 효과

#### 1. 정당구도의 다양화

정당은 정강정책과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당구도는 단순히 정당의 존재가치가 아니라 정당의 규모를 기준으로 정책결정에

12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1호 (2019 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의 수가 중요하다. 정당의 규모는 선거과정  
에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대정당, 소정당, 미니정당, 미크로 정당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구도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교  
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의미한다. 한국의 원내교섭단체는 대부분의  
경우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하였다.

<표 1> 3김정치시대 이전 국회 원내단체교섭 정당별 의석수

국회의원 선거	정당명(의석수)					합 계
제1대(1948)	대한독립촉성 국민회(55)	한국민주당 (29)			기타무소속(85)	200
제2대(1950)	민주국민당(24)	대한국민당(24)			기타무소속(61)	210
제3대(1954)	자유당(111)				기타무소속(270)	203
제4대(1958)	자유당(126)	민주당(80)			기타무소속(126)	233
제5대(1960)	민주당(175)				기타무소속(94)	233
제6대(1963)	민주공화당(110)	민정당(40)	민주당(14)		기타무소속(110)	175
제7대(1967)	민주공화당(123)	신민당(45)			기타무소속(10)	175
제8대(1971)	민주공화당(113)	신민당(89)			기타무소속(20)	204
제9대(1973)	민주공화당(73)	신민당(52)			기타무소속(219)	146
제10대(1978)	민주공화당(68)	신민당(61)			기타무소속(322)	154
제11대(1981)	민주정의당(151)	민주한국당(81)	한국국민당(25)		기타무소속(811)	276
제12대(1985)	민주정의당(148)	신한민주당(67)	민주한국당(35)	한국국민당(20)	기타무소속(24)	27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주1) 제5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의원선거이며, 제9대~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신정우회를 제외함.

한국정치에서 정당구도의 다양화는 국회에서 제3당 이상이 원내교섭  
단체를 확보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정치에서 정당구도의 다양화는 3  
김정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미약했다. 3김정치 이전 제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1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정당구도는 양당체제가 보편적이었  
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정당구도는 제3대 국회의원선거부  
터 제1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일당우위적 양당체제였다. 하지만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붕괴된 후 실시된 제11대~제12대 국회의  
원선거에서는 제1당의 우월적 지위 속에서 이를 견제하려는 제2당, 제3

당, 제4당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당구도의 다양화는 박정희에 의한 장기집권이 붕괴되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정권창출에 대한 기대심리가 공존했기 때문이다.

<표 2> 3김정치시대 국회 원내단체교섭 정당별 의석수

국회의원 선거	정당명 (대표인물)					합 계
	의석수					
제13대 (1988)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기타무 소속	299
	125	59	70	35	1/9	
제14대 (1992)	민주자유당 (김영삼+김종필)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기타무 소속	299
	149	97	31		1/21	
제15대 (1996)	신한국당 (김영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기타무 소속	299
	139	79	50		15/16	
제16대 (2000)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한나라당 (이회창)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기타무 소속	273
	115	133	17		3/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6.29선언으로 3김정치가 본격화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부터 3김정치가 퇴보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까지 국회 원내교섭단체는 제3당 지위가 안정화된 다당제였다(정태일 2015, 296).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3김정치가 전면에 등장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안정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었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었다. 이는 한국의 정당구도가 3김정치를 통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3김정치에 의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한 제3당과 제4당의 지위가 3김정치 이후에도 지속되느냐 하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면, 3김정치가 퇴보한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제3당이 국회의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민의당’만 가능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차기 유력 대통령후보인 안철수의 존재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정주신 2017a). 이렇게 볼 한국의 정당구도가 3김정치에 의해 다당화 되었지만 3김정치 이후 양당제로 복귀되어 3김정치가 정당구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3김정치시대 이후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의원 선거	정당명 (대표인물)					합계
	의석수					
제17대 (2004)	열린우리당 (노무현)	한나라당 (박근혜)	민주노동당 (권영길)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기타무소속	299
	152	121	10	9	5/2	
제18대 (2008)	통합민주당 (손학규)	한나라당 (이명박)	자유선진당 (이회창)	친박연대 (서청원)	기타무소속	299
	81	153	18	14	8/25	
제19대 (2012)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심상정)	자유선진당 (이회창)	기타무소속	300
	152	127	13	5	0/3	
제20대 (201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새누리당 (박근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기타무소속	300
	123	122	38	6	0/1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표 1, 2, 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의 정당구도는 혼란한 정치상황을 제외하면 양당체제가 보편적 현상이었다. 한국의 정당구도는 1979년 10.26사건과 12.12쿠데타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정근하 2017) 등 극단적 정치혼란시기의 제11대~제12대 국회의원선거, 3김정치가 본격화된 제13대와 제15대~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제3의 차기 대통령후보가 존재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제3당, 제4당까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했다. 이로 볼 때 3김정치가 정당구도의 다당화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3김정

치는 3김 당사자가 정권창출의 가능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영삼은 영남권에서, 김대중은 호남권에서, 김종필은 충청권에서 절대적 지지를 얻어 지역감정에 호소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김진하 2010, 89-114). 결국 3김정치는 정권창출 가능성과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정당구도의 다당화에 영향을 주었다.

## 2. 정권교체의 안정화

3김정치시대 이전까지 한국의 정권교체는 예측가능한 절차와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격변 그 자체였다(쑤이페이·정태일 2017, 38-65).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인위적인 헌법개정과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연장하자 4.19혁명이 발생해 해야했다. 이후 내각책임제에 기반한 민주당의 장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로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도 헌법개정과 집권여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활용해 장기집권을 도모했으나 1979년 10월 26일에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었다. 당시 양김(김영삼, 김대중)의 정치위상은 한국정치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1979년 12.12쿠데타와 1980년 5.18광주민중화운동으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자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는 불가능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3김정치 이전 정권교체는 비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선출방식변경과 임기보장방식변경을 위해 각각 헌법개정을 활용해 영구적인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다. 반면에 전두환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인지하여 7년 단임대통령제를 도입하였지만 대통령선거방식에서 직접선거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을 채택하였다. 결국 3김정치 이전 한국의 정권교체는 한국의 위기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집권자의 집권안정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헌법개정으로 불가능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3김정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정신을 계승한 제9차 개정헌법(87년 체제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것으로 헌법 70조에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였다(정태일·쑤이페이 2017, 178-179).

<표 4> 3김정치시대 이전 대통령선거 분석

대통령선거 (선거일)	권력구조	당선자 (득표율)	차순위자 (득표율)	선거방식	선거변수
제1대 (1948.7.20.)	대통령 중심제	이승만 (92.3)	김구 (6.7)	간접선거 (국회)	- 제헌국회에 민족주의세력 등은 참여하지 않음
제2대 (1952.8.5.)		이승만 (74.6)	조봉암 (11.4)	직접선거	- 이승만은 간접선거로 대통령당선이 불확실하자 1952년 발췌개헌으로 국회 간접선거에서 국민 직접선거로 변경함
제3대 (1956.5.15.)		이승만 (70.0)	조봉암 (30.0)		- 1954년 시사오입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제4대 (1960.3.15.)		이승만 (100.0)	-		- 조병옥 대통령 후보의 사망으로 단독후보 - 3.15선거는 무효 처리되어 재선거가 실시
제4대 (1960.8.12.)	의원 내각제	윤보선 (82.2)	김창숙 (11.5)	간접선거 (국회)	- 1960년 4.19혁명으로 내각책임제로 변경 - 실권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장변)가 가짐
제5대 (1963.10.15.)	대통령 중심제	박정희 (46.6)	윤보선 (45.1)	직접선거	- 군정종식과 1962년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제를 재도입함 - 대통령의 정당추천제를 채택함
제6대 (1967.5.3.)		박정희 (51.4)	윤보선 (40.9)		- 1차 중임제한규정으로 박정희 3선이 불가능함 - 1969년 헌법개정을 통해 삼선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제7대 (1971.4.27.)		박정희 (53.2)	김대중 (45.2)		-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감이 표출됨 -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단독후보 출마와 장기집권이 용이한 간접선거를 채택함 -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함
제8대 (1972.12.23.)		박정희 (100.0)	-	간접선거 (통일주체 국민회의)	- 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피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선출함
제9대 (1978.7.6.)		박정희 (100.0)	-		-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함
제10대 (1979.12.6.)		최규하 (100.0)	-		- 1979년 10.26사건과 12.12쿠데타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1980년 장기집권이 불가능한 7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을 채택함
제11대 (1980.8.27.)		전두환 (100.0)	-		
제12대 (1981.2.25.)			전두환 (90.2)	유치송 (7.7)	간접선거 (대통령선 거인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따른 ‘87년체제’ 헌법에 따라 김영삼과 김대중, 김종필이 독자적으로 정권창출을 도모하였다.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는 3김이 독자적으로 정권창출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국민들은 장기독재정치가 청산되어 민간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으나 양김(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모두 출마하고, 김종필까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양김이 무시한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3김정치가 본격화된 제13대 대통령선거는 3김이 분열됨에 따라 4자 대결구도로 실시되어 역대 최저 득표율인 36.6%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 5> 3김정치시대 대통령선거 분석

선거유형	정당	후보	실제득표율 (A)	단일후보 득표율(B)	득표율 차이(A-B)	선거변수
제14대 대통령선거 (1992.12.18.)	민주자유당	김영삼	420	36.1	(+59)	- 3당합당으로 김영삼 으로의 후보단일화 - 김종필의 불출마
	민주당	김대중	338	-	-	
	통일국민당	정주영	163	-	-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64	-	-	
제13대 대통령선거 (1987.12.16.)	통일민주당	김영삼	280	45.0	(-27.0)	- 3김이 독자 출마함 - 김대중+김영삼의 후 보단일화는 당선가 능성이 매우 높았음
	평화민주당	김대중	270		(-28.0)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81	44.7	(-36.6)	
	민주정의당	노태우	366		(-8.1)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12.18.)	한나라당	이회창	387	-	-	- DJP연합으로 김대중 으로의 후보단일화 - 김종필의 불출마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403	35.1	(+52)	
	국민신당	이인제	192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양김(김영삼+김대중)이 단일후보로 출마했을 경우 45.0%로 보수성향의 김종필과 노태우가 단일후보로 출마했을 경우 44.7%보다 높았다. 이는 국민들이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장기집권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제14대 대통령선거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김종필이 단일후보로 김영삼과 김

대중 중 누구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대통령 당선이 결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제13대 대통령선거의 3김 득표율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3당합당(노태우의 민주정의당+김영삼의 통일민주당+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으로 민주자유당의 대통령후보가 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28.0%, 김종필 8.1%를 합산한 36.1%로 이는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얻은 실제 득표율 33.8%보다 2.3%가 많다.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제13대 대통령선거의 3김 득표율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DJP연합(김대중+김종필)의 단일후보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27.0%, 김종필 8.1%를 합산한 35.1%로 이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얻은 실제 득표율 38.7%보다 3.6%가 적다.

이렇게 볼 때 제13대 대통령선거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단일후보로 김영삼으로 혹은 김대중으로 단일화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당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후보단일화 이루어질 경우에 실제 득표율과 단일후보 득표율의 차이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5.9%,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5.2%로 후보단일화에 대한 효과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단일후보로 3김 중 누가 되든 득표율에서 5% 이상의 득표율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정대화 1998, 56-63). 결과적으로 3김정치는 제13대 대통령선거로 시작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종식되었다. 3김정치는 민주화투쟁의 경험이 있는 양김(김영삼, 김대중)이 김종필과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성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한국의 정권교체는 3김정치에서 시작된 당선가능성이 낮은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었으나 선거 전날 정몽준 후보의 지지철회로 노무현의 당선가능성을 위협하였다. 하지만 정몽준의 지지철회는 노무현 후보의 지지세력이 결집되도록 하여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김종필의 한나라당 입당 후 지지 선언,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되었지만 당선가능성이 높은 이명박 후보와 당선 가능성이 낮은 이회창 후보를 중심으로 한 후보단일화는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표 6> 3김정치시대 이후 대통령선거 분석

선거유형	정당	후보	득표율	선거변수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12.19.)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48.9	-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제 도입 - 2002년 월드컵으로 정몽준의 급부상 - 노무현과 「국민통합21」 정몽준의 후보단일화 - 정몽준, 선거 전날 노무현 지지철회
	한나라당	이회창	46.6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12.19.)	한나라당	이명박	48.7	- 이회창 한나라당 탈당 후 출마 - 이회창과 「국민중심당」 심대평의 후보단일화 - 김종필의 「한나라당」 입당 후 이명박 지지 선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26.1	
	무소속	이회창	15.1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12.19.)	새누리당	박근혜	51.6	- 헌법불합치 판결로 선상투표 실시 - 무소속 안철수, 문재인 지지선언 후 후보등록포기 -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문재인 지지선언 후 사퇴
	민주통합당	문재인	48.0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5.9.)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41.1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선거 실시 -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 시작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 - 유승민,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정당」 창당 - 안철수+유승민, 유승민+홍준표 단일화 논의 실패
	자유한국당	홍준표	24.0	
	국민의당	안철수	21.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단일화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구도를 만들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중심이 된 후보단일화는 보수세력 대 진보세력의 선거구도 속에서 진행되었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후 후보등록을 포기하였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후 사퇴하였다. 보수세력 대 진보세력의 양자대결구도로 진행된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51.6%로 당선되어 진보세력의 후보단일화 의미를 퇴색시켰다. 또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에 실시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사이에 후보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 본 <표 4, 5, 6>에 따르면, 한국의 정권교체는 3김정치 이전에 1인에 의한 장기집권으로 불가능하였다. 물론 민주화 이후 단일제 대통령제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3김정치에서 대통령 후보단일화 방식에 의한 정권교체는 효과적 방법이었다. 대통령 후보단일화는 3김정치에서 3당통합 방식을 활용한 김영삼으로의 후보단일화, DJP연합 방식을 활용한 김대중으로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어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3김정치 이후 대통령 후보단일화는 제16대~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지속되었으나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볼 때 3김정치에서 시작된 대통령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면서 지속되는 경향을 가진다.

## IV. 3김정치의 정치적 왜곡

### 1. 정당의 단명화

한국정당은 급변하는 정치혼란으로 분열과 통합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서구적 정당체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한국정당은 국민적 지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다. 3김정치 이전의 한국정당은 국민적 지지와 상관없이 집권세력의 안정화를 위해 정당이 존속하는 경향이 있어 집권세력의 변경은 곧 집권정당의 소멸로 이어졌다.

3김정치 이전 정권창출과 정권연장을 위해 창당된 정당은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등이 대표적이다. 집권정당이 아니더라도 3김정치 이전 한국정당은 3김처럼 특정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예를 들어 민주국민당의 신익희, 대한국민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정당의 윤보선, 신민당의 유진오와 유진산, 신한민주당의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표적이다.<sup>3)</sup>

3김정치 이전 한국정당의 불안정성은 정치환경에서 기인된 것이지만 집권당인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과 제7대~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신민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1회~2회 정도 유력정당으로 생존하였다. 이는 한국정당이 분열과 통합과정을 반복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정당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3김정치 이전 집권당은 집권이 붕괴된 이후 정당이 해체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마찬가지로 야당도 통합과 분열과정을 통해 재창당하는 현상을 반복하였다. 이렇게 볼 때 3김정치 이전의 집권당은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적 역할에 충실한 반면에 야당은 정권창출을 위해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였다. 특히, 3김정치 이전 야당은 선거과정의 참여를 목적으로 창당과 재창당을 거듭하여 정당의 수명이 단명이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3김정치가 본격화 되면서 한국정당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3김정치 이전의 한국정당이 집권당과 그에 대항하는 다양한 야당의 출현이라면 3김정치에서는 3김이 각자 독자세력을 구축하면서 내각책임제를 전제로 정당을 통합하고, 정당간 연합하며, 각자 재창당하는 형태를 반복하였다(정상호 1998, 99).

3) 듀베르제(Duverger)에 의하면 한국정당은 당원보다는 정당지도부의 역할과 활동이 강조되는 간부정당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한수 1999, 22).

<표 7> 3김정치시대 이전 제1당 및 제2당 분석

정부	국회의원선거		제1당		제2당		합계
	순번	선거일	정당명 (대표인물)	의석수	정당명 (대표인물)	의석수	
이승만정부	제1대	1948.5.10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승만/김구)	55	한국민주당 (송진우/조병옥)	29	200
	제2대	1950.4.12	민주국민당 (신익회)	24	대한국민당 (윤보선)	24	210
	제3대	1954.4.7.	자유당 (이승만)	111	민주국민당 (신익회)	16	203
	제4대	1958.3.31		126	민주당 (신익회/장면)	80	233
장면정부	제5대	1960.6.27	민주당 (윤보선/장면)	175	사회대중당 (서상일)	4	233
박정희정부	제6대	1963.10.26.	민주공화당 (박정희)	110	민정당 (김병로/윤보선)	40	175
	제7대	1967.5.8.		102	신민당 (유진오)	45	175
	제8대	1971.5.1.		113	신민당 (유진산)	89	204
	제9대	1973.2.9.		73		52	146
	제10대	1978.11.24.		68	신민당 (이철승/김영삼)	61	154
전두환정부	제11대	1981.3.5.	민주정의당 (전두환)	151	민주한국당 (유치송)	81	276
	제12대	1985.1.23		148	신한민주당 (김영삼/김대중)	67	27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주1) 제5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의원선거, 제9~10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선거임.

주2)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교섭단체는 민주정의당, 신한민주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임.

<표 8>에서 나타난 것처럼, 3김이 독자적으로 정당을 창당한 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3김이 창당한 정당은 모두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되었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과 김대

중의 민주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되었다. 또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되었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회창의 한나라당,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되었다. 그렇지만 3김정치에서 3김이 의한 정당은 정권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창당과 통합, 재창당의 절차를 지속하여 단일정당의 수명을 단축시켰다. 예를 들어 김영삼의 경우는 통일민주당(제13대)-민주자유당(제14대)-신한국당(제15대)으로, 김대중의 경우는 평화민주당(제13대)-민주당(제14대)-새정치국민회의(제15대)-새천년민주당(제16대)으로, 김종필의 경우는 신민주공화당(제13대)-민주자유당(제14대)-자유민주연합(제15대~제16대)으로 변화를 거듭하였다(김성수 2013, 82-85). 이는 3김정치에서 3김이 독자적으로 창당한 정당이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공당적인 성향보다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사당적인 성향을 지니면서 변화를 거듭했기 때문이며, 이는 정당의 존속기간을 단축시켰다.

<표 8> 3김정치시대 정당구도의 분석

구분	국회의원선거							
	제13대 국회의원선거 (1988.4.26.)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2.3.24.)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996.4.11.)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4.13.)	
정부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순위	정당명 (대표인물)	의석수						
제1당	민주정의당 (노태우)	125	민주자유당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149	신한국당 (김영삼)	139	한나라당 (이회창)	133
제2당	평화민주당 (김대중)	70	민주당 (김대중)	97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79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115
제3당	통일민주당 (김영삼)	59	통일국민당 (정주영)	31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50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17
제4당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35	신정치개혁당 (박찬종)	1	통합민주당 (조순)	15	민주국민당 (김윤환)	2
합계	299		299		299		27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주1)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은 17석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에 실패하였으나 DJP공동정권의 취지에 따라 3석이 확보됨.

한편, 3김정치 이후 한국정당이 3김식의 정당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3김정치 종식을 의미하는 선거로 김종필을 제외한 양김이 정치일선에서 은퇴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하여 한국의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3김정치 이후에도 3김정치 방식의 정당 창당과 정당 해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정당의 단명화가 지속되었다. <표 9>에서 보듯이 3김정치 이후 집권당은 재임 대통령의 임기말이나 신임 대통령의 임기 초에 당명 변경내지 새창당을 통해 대통령의 사당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찬가지로 3김정치 이후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한 야당도 유력 대통령 후보에 의해 사당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등이다.

<표 9> 3김정치시대 이후 정당구도의 분석

구분	국회의원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4.15.)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08.4.9.)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4.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4.13.)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순위	정당명(대표인물)	의석 수	정당명(대표인물)	의석 수	정당명(대표인물)	의석 수	정당명(대표인물)	의석 수
제1당	열린우리당(노무현)	152	한나라당(이명박)	153	새누리당(박근혜)	152	더불어민주당(문재인)	123
제2당	한나라당(박근혜)	121	통합민주당(손학규)	81	민주통합당(문재인)	127	새누리당(박근혜)	122
제3당	민주노동당(권영길)	10	자유선진당(이회창)	18	통합진보당(이정희)	13	국민의당(안철수)	38
제4당	새천년민주당(한화갑)	9	친박연대(서청원)	14	자유선진당(이회창)	5	정의당(노회찬)	6
합계	299		299		300		3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결국 <표 7, 8, 9>에서 보듯이 한국정당들은 3김정치 이전에는 대통령의 사당화 현상으로 집권당의 수명이 대통령 임기와 맥을 같이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3김정치에는 3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창당과 재창당, 정당통합과 정당연합 등을 통해 정당수명을 단축시켰다(김용호 2016, 10-14). 또한 3김정치 이후에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의한 정당창당과 당명변경이 빈번하게 진행되면서 단일 정당의 수명이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2회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이는 3김정치가 한국정당의 사당화 현상을 강화시킨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한국정당의 단명화 현상은 3김정치 이전과 이후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 점은 한국의 정당이 3김정치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당이 특정인물에 의해 창당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정치성향의 편중화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에서 평가된다.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는 3김정치와 맥을 같이 한다. 3김정치 이전에는 대통령선거이든, 국회의원선거이든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거행태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상훈 2000, 187). 물론 3김정치 이전에는 지역에 기반한 인물이 부각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지만 인물에 좌우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것도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2년 제8차 헌법개정과 1980년 제9차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3김정치 이전 지역에 기반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3공화국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지역에 기반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3김정치부터 지역후보를 중심으로 나타난 지역적 정치이념성향은 3김정치 이전 대통령선거에서 호남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박경미 외 2012, 127-154).

<표 10> 3김정치시대 이전 대통령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구분	대통령선거								
	제5대 대통령선거 (1960.7.29.)			제6대 대통령선거 (1963.11.26.)			제7대 대통령선거 (1967.6.8.)		
정당명	민주공화당	신민당	득표율 차이 (A-B)	민주공화당	신민당	득표율 차이 (A-B)	민주공화당	신민당	득표율 차이 (A-B)
이념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지역	박정희 (A)	윤보선 (B)		박정희 (A)	윤보선 (B)		박정희 (A)	김대중 (B)	
서울	30.2	65.1	-34.9	45.2	51.3	-6.1	40.0	59.4	-19.4
경기	33.1	56.9	-23.8	41.0	52.6	-11.6	48.9	49.5	-0.6
강원	39.6	49.1	-9.5	51.3	41.7	9.6	59.8	38.8	+21.0
충남	40.8	49.4	-8.6	45.4	46.8	-1.4	57.3	40.7	+16.6
충북	39.8	48.9	-9.1	46.6	43.6	+3.0	53.5	44.4	+9.1
전남	57.2	35.9	<b>+21.3</b>	44.6	46.6	<b>-2.0</b>	35.5	61.5	<b>-26.0</b>
전북	49.4	41.5	<b>+7.9</b>	42.3	48.7	<b>-6.4</b>	34.4	62.8	<b>-28.1</b>
부산	48.2	47.4	<b>+0.8</b>	64.2	31.2	<b>+33.0</b>	55.7	43.6	<b>+12.1</b>
경남	61.7	29.9	<b>+31.8</b>	68.6	23.0	<b>+45.6</b>	75.6	23.3	<b>+52.3</b>
경북	55.7	36.1	<b>+19.6</b>	64.0	26.4	<b>+37.6</b>	73.4	25.6	<b>+47.8</b>
제주	69.9	22.1	+47.8	56.5	32.1	+24.4	56.9	41.4	+15.5
전국	46.6	45.1	+1.5	51.4	40.9	+10.5	53.2	45.3	+7.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표 10>에서 보듯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는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영남권은 득표율이 강화된 반면에 호남권에서 득표율 차이가 전남 - 2.0%과 전북 - 6.4%로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보다 적었다. 또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는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에서 압승을 거둔 반면에 호남권에서 전남 - 26.0%과 전북 - 28.1로 호남출신인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밀렸다(고성국 1992, 180-181). 이는 한국정치에서 보수인 영남권과 진보인 호남권의 정치이념성향의 편중현상이 양김정치가 대두되면 확산됨을 의미한다.

양김정치가 시작된 이후 영남권의 보수화 현상과 호남권의 진보화

현상은 3김정치에서 강화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의 정치지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지역연고와 결부된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지역적 정치이념화 성향이 정당지도자의 의사에 따른 정당통합과 정당연합과정 속에서도 지속되느냐 하는 것이다(진영재·박준식 2008, 132).

<표 11>은 보듯이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호남권에서 83%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였지만 영남권에서는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고, 보수성향의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영남권인 대구-경북에서 70.7%-66.4%, 부산-경남에서 32.1%-41.2%를 확보하였으나 호남권에서는 15%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다. 보수성향의 노태우 후보가 부산-경남에서 득표율이 저조한 것은 진보성향을 지니면서 지역적 연고가 있는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의 득표율이 51.3%-56.0%였기 때문이다.

<표 11> 3김정치시대 대통령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대통령 선거	정당명	정치성향	후보	전국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부산	경남	대구	울산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제13대 (1987)	민주정의당	보수	노태우	36.6	32.1	41.2	70.7	66.4	4.8	8.2	14.1	26.2	46.9		
	통일민주당	진보	김영삼	28.0	56.0	51.3	24.3	28.2	0.5	1.2	1.5	16.1	28.2		
	평화민주당	진보	김대중	27.0	9.1	4.5	2.6	2.4	94.4	90.3	83.5	12.4	11.0		
	신민주공화당	보수	김종필	8.1	2.1	2.7	2.1	2.6	0.2	0.3	0.8	45.0	13.5		
제14대 (1992)	민주자유당	보수	김영삼 (김종필)	42.0	73.3	72.3	59.6	64.7	2.1	4.2	5.7	35.2	36.9	38.3	
	민주당	진보	김대중	33.8	12.5	9.2	7.8	9.6	95.8	92.2	89.1	28.7	28.5	26.0	
	통일국민당	보수	정주영	16.3	6.3	11.5	19.4	15.7	1.2	2.1	3.2	23.3	25.2	23.9	
	신정치개혁당	진보	박찬중	6.4	6.6	5.5	11.7	8.2	0.4	0.6	0.8	11.2	6.7	9.4	
제15대 (1997)	한나라당	보수	이회창	38.7	53.3	55.1	72.7	51.4	61.9	1.7	3.2	4.5	29.2	23.5	30.8
	새정치국민회의	진보	김대중 (김종필)	40.3	15.3	11.0	12.5	15.4	13.9	97.3	94.6	92.3	45.0	48.3	37.4
	국민신당	보수	이인제	19.2	29.8	31.3	13.1	26.7	21.8	0.7	1.4	2.1	24.1	26.1	29.4
	건설국민승리21	진보	권영길	1.2	1.2	1.7	1.2	6.1	1.5	0.2	0.2	0.4	1.2	1.0	1.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주1) 대통령후보자 중 전국 득표율이 1% 미만은 제외함.

제14~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역적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이 극대화 되면서 안정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성향의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부산-경남-대구-경북에서 73.3%-72.3%-59.6%-64.7%를 얻은 반면에 호남권에서는 6% 미만을 얻었다. 반면에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성향의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광주-전남-전북에서 95.8%-92.2%-89.1%를 얻은 반면에 부산 12.5%을 제외하면 영남권에서 10% 미만을 얻었다.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부산-경남-대구-울산-경북에서 53.3%-55.1%-72.7%-51.4%-61.9%를 얻은 반면에 호남권에서는 5% 미만을 얻었다. 반면에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광주-전남-전북에서 97.3%-94.6%-92.3%를 얻은 반면에 영남권에서 11%~16%만 얻었다.

결국 3김정치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역적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은 지역적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강화되는 측면에 강한데, 특히 김대중 후보와 관련된 호남권의 이념적 편중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문우진 2016, 40-42).

그렇다면 3김정치가 쇠퇴한 이후 영남권과 호남권의 보수와 진보 편중화 현상은 한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표 12>에서는 3김정치 이후 영남권과 호남권의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을 볼 수 있다. 제16대~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은 대통령후보의 지역적 연고와 관계없이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영남권의 보수적 이념 편중화 현상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부산-경남-울산에서 균열되기 시작했다(지충남 2010, 77).

<표 12>에서 보듯이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제16대)는 최저 52.9%(울산)에서 최고 77.8%(대구),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제17대)는 최저 54.0%(울산)에서 최고 72.6%(경북),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18대)는 최저 59.8%(울산)에서 최고 80.8%(대구)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보성향이 강한 호남권에서 제16대 이회

창 후보는 6.2%(전북), 제17대 이명박 후보는 9.2%(전남), 제18대 박근혜 후보는 13.2%(전북)의 최고 득표율을 보였다.

<표 12> 3김정치시대 이후 대통령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대통령 선거	정당명	정치성향	후보	전국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세종		
					부산	경남	대구	울산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제16대 (2002)	한나라당	보수	이회창	46.6	<b>66.7</b>	<b>67.5</b>	<b>77.8</b>	<b>52.9</b>	<b>73.5</b>	3.6	4.6	6.2	39.8	41.2	42.9	
	새천년민주당	진보	노무현	48.9	29.9	27.1	18.7	35.3	21.7	<b>95.2</b>	<b>93.4</b>	<b>91.6</b>	55.1	52.2	50.4	
	민주노동당	진보	권영길	3.9	3.1	5.0	3.3	11.4	4.3	1.0	1.1	1.4	4.4	5.4	5.8	
제17대 (2007)	대통합민주신당	진보	정동영	26.1	13.5	12.4	6.0	13.6	6.8	<b>79.8</b>	<b>78.7</b>	<b>81.6</b>	23.6	21.1	23.8	
	한나라당	보수	이명박	48.7	<b>57.9</b>	<b>55.0</b>	<b>69.4</b>	<b>54.0</b>	<b>72.6</b>	8.6	9.2	9.0	36.3	41.6	41.6	
	민주노동당	진보	권영길	3.0	2.8	5.4	2.0	8.4	2.8	2.1	2.4	1.9	2.5	3.6	3.6	
	창조한국당	진보	문국현	5.8	5.4	4.8	4.0	5.5	3.3	4.8	3.2	2.8	7.1	5.7	5.7	
제18대 (2012)	무소속	보수	이회창	15.1	19.7	21.5	18.1	17.5	13.7	3.4	3.6	3.6	28.9	23.4	23.4	
	새누리당	보수	박근혜	51.6	<b>59.8</b>	<b>63.1</b>	<b>80.1</b>	<b>59.8</b>	<b>80.8</b>	7.8	10.0	13.2	50.0	56.7	56.2	
제19대 (2017)	민주통합당	진보	문재인	48.0	39.9	36.3	19.5	39.8	18.6	<b>92.0</b>	<b>89.3</b>	<b>86.3</b>	49.7	42.8	43.3	
	더불어민주당	진보	문재인	41.1	<b>38.7</b>	<b>36.7</b>	21.8	<b>38.1</b>	21.8	<b>61.1</b>	<b>59.9</b>	<b>64.8</b>	42.9	38.6	38.6	51.1
	자유한국당	보수	홍준표	24.0	32.0	37.2	<b>45.4</b>	27.5	<b>48.6</b>	1.6	2.5	3.3	20.3	24.8	26.3	15.2
	국민의당	진보	안철수	21.4	16.8	13.4	15.0	17.3	14.9	30.1	30.7	23.8	23.2	23.5	21.8	21.0
	바른정당	보수	유승민	6.8	7.2	6.7	12.6	8.1	8.8	2.2	2.1	2.6	6.3	5.6	5.9	6.0
정의당	진보	심상정	6.2	4.9	5.3	4.7	8.4	5.2	4.6	4.0	4.9	6.8	6.8	6.7	6.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주1) 대통령후보자 중 전국 득표율이 1% 미만은 제외함.

한편, 진보성향이 강한 호남권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제16대)는 최저 91.6%(전북)에서 최고 95.2%(광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제17대)는 최저 78.7%(전남)에서 최고 81.6%(전북),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제18대)는 최저 86.3%(전북)에서 최고 92.0%(광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권에서 제16대 노무현 후보는 29.9%(부산), 제17대 정동영 후보는 13.6%(울산), 제18대 문재인 후보는 대구-경북의 19.5%-18.6%와 부산-경남-울산 39.9%-36.3%-39.8%의 득표율을 보였다.

한편, <표 12>에서 보듯이 제16대~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호남권의 진보성향은 균열현상이 보이지 않지만 영남권은 대구-경북을 제

외한 부산-울산-경남은 보수성향이 점진적으로 균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의 진보성향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합산 지지성향이 9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영남의 보수성향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합산 지지성향이 부산 39.2%, 경남 43.9%, 대구 58.0%, 울산 35.6%, 경북 57.4%로 나타났는데,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보수의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이 붕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보성향의 문재인 후보가 부산 38.7%, 경남 36.7%, 울산 38.1%로 최고 득표율을 보인 것에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표 10, 11, 12>를 통해 검토하면, 진보성향의 호남권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편중화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지역적 연고와 관계없이 진보성향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보수성향의 영남권인 대구-경북은 정치이념적 편중화 현상이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산-경남-울산은 지역적 연고와 관련되어 정치이념적 편중화 현상이 균열되었다. 이는 지역적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은 호남권에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영남권에서는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붕괴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준한 2013, 17-18).

그렇다면 3김정치 이후 보수성향의 영남권과 진보성향의 호남권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표 13>에 의하면, 3김정치가 시작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성향의 민주정의당과 신민주공화당이 영남권에서는 의석을 60.6%, 호남권에서는 0.0%였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통일민주당이 영남권에서는 의석을 37.9%, 호남권에서는 진보성향의 평화민주당이 의석을 97.3%였다. 이는 영남권에서 보수성향, 호남권에서 진보성향이라는 지역적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김정치의 지역적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은 제14대~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면, 영남권에서 보수성향의 의석율은 제14대 84.5%, 제

15대 80.2%, 제16대 98.5%인 반면에 진보성향의 의석율은 제14대 0.0%, 제15대 3.9%, 제16대 0.0%이다. 한편, 호남권에서 진보성향의 의석율은 제14대 94.9%, 제15대 97.3%, 제16대 96.2%인 반면에 보수성향의 의석율은 제14대 5.1%, 제15대 2.7%, 제16대 0.0%이다. 이는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역적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은 3김정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17대~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면, 영남권에서 보수성향의 의석율은 제17대 88.2%, 제18대 70.0%, 제19대 94.0%, 제20대 73.9%인 반면에 진보성향의 의석율은 제17대 5.9%, 제18대 2.9%, 제19대 4.5%, 제20대 15.3%이다. 한편, 호남권에서 진보성향의 의석율은 제17대 96.8%, 제18대 80.6%, 제19대 93.3%, 제20대 92.9%인 반면에 보수성향의 의석율은 제17대 0.0%, 제18대 0.0%, 제19대 0.0%, 제20대 7.1%이다. 이는 삼김정치시대 이후에도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이 심각하게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결국 <표 10, 11, 12, 13>에 따르면 3김정치에서 본격화된 보수성향의 영남권과 진보성향의 호남권의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정치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의 상반된 정치이념 편중화가 정치이념적 왜곡현상을 가중시키면서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적 정치이념 편중화 현상은 ‘민주와 반민주’ 구도가 지역주의 구도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3김정치 이후 ‘민주와 반민주’가 부활하면서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3> 3김정치시대와 3김정치시대 이후 영·호남의 지역구 의석 현황

국회 의원 선거	지역	민주정의당 (보수)		신민주공화당 (보수)		통일민주당 (진보)		평화민주당 (진보)		기타/무소속		합계	
		의석	비율	의석	비율	의석	비율	의석	비율	의석	비율	의석	비율
제3대 (1988)	영남권	38	57.6	2	3.0	25	37.9	-	-	1	1.5	66	100
	호남권	-	-	-	-	-	-	36	97.3	1	2.7	37	100
제4대 (1992)	지역	민주자유당 (보수)		통일국민당 (보수)		민주당 (진보)		신정치개혁당 (진보)		무소속			
	영남권	53	74.6	7	9.9	-	-	-	-	11	15.5	71	100
	호남권	2	5.1	-	-	37	94.9	-	-	-	-	39	100
제5대 (1996)	지역	신한국당 (보수)		자유민주연합 (보수)		새정치국민회의 (진보)		통합민주당 (진보)		무소속			
	영남권	51	67.1	10	13.1	-	-	3	3.9	12	15.8	76	100
	호남권	1	2.7	-	-	36	97.3	-	-	-	-	37	
제6대 (2000)	지역	신한국당 (보수)		민국당/한국신당 (보수)		새천년민주당 (진보)		자유민주연합 (보수)		무소속			
	영남권	64	98.5	-	-	-	-	-	-	1	1.5	65	100
	호남권	-	-	-	-	25	96.2	-	-	1	3.8	26	100
제7대 (2004)	지역	한나라당 (보수)		자유민주연합 (보수)		열린우리당 (진보)		새천년민주당 (진보)		기타/무소속			
	영남권	60	88.2	-	-	4	5.9	-	-	4	5.9	68	100
	호남권	-	-	-	-	25	80.6	5	16.2	1	3.2	31	100
제8대 (2008)	지역	한나라당 (보수)		친박연대 (보수)		자유선진당 (보수)		통합민주당 (진보)		기타/무소속			
	영남권	46	67.6	5	7.4	-	-	2	2.9	15	22.1	68	100
	호남권	-	-	-	-	-	-	25	80.6	6	19.4	31	100
제9대 (2012)	지역	새누리당 (보수)		자유선진당 (보수)		통합민주당 (진보)		통합진보당 (진보)		무소속			
	영남권	63	94.0	-	-	3	4.5	-	-	1	1.5	67	100
	호남권	-	-	-	-	25	83.3	3	10.0	2	6.7	30	100
제20대 (2016)	지역	새누리당 (보수)		더불어민주당 (진보)		국민의당 (진보)		정의당 (진보)		무소속			
	영남권	48	73.9	9	13.8	-	-	1	1.5	7	10.8	65	100
	호남권	2	7.1	3	10.7	23	82.2	-	-	-	-	28	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V. 결론

한국정치에서 3김정치를 배제한 채 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3김정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지역주의를 통해 한국사회를 분열시켰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도 양김정치가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확산된 것으로 본다면 3김정치는 한국정치의 전환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3김정치의 정치적 효과는 첫째, 정당구도의 다양화이다. 3김정치시대 이전 한국정당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제외하면 양당체제가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시대에는 제3당 혹은 제4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다당제가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정당구도는 3김정치시대 이후 양당체제로 복귀하였으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3당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볼 때 3김정치는 한국정당의 다당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시대 이전 정권교체는 정치적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였으나 3김정치시대에는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3김정치시대 이후 후보단일화 논의는 대통령당선 가능성이 약한 후보들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후보단일화논의는 대통령선거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는 경향이다.

3김정치의 정치적 왜곡은 첫째, 정당의 단명화이다. 3김정치시대 이전 한국정당은 장기독재를 구축한 집권당과 박정희 정부 시기의 신민당을 제외하면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다. 정당의 단명화는 3김정치시대의 집권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3김정치가 전략적 선택으로 정당창당과 재창당 및 해체를 반복한 결과이다. 3김정치시대에 만연된 정당의 단명화는 3김정치시대 이후도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창당 및 정당통합과 재창당 및 해체를 반복하였다. 한국정당의 단명화는 3김정치시대를 기점으로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의 사당화를 위한 방편이 되고 있다. 둘째, 정치성향의 편중화이다. 한국정치에서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정치지형은 3김정치시대 이전에 지역 편중화 현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3김정치시대에는 보수성향의 영남권과 진보성향의 호남권이 지역연고가 있는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이념적 편중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났으며, 3김정치시대 이후에는 정당의 정치성향과 결부되어 확산되고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영남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이념 편중화 현상은 3김정치의 산물이지만 3김정치시대 이후에 정당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김정치는 한국정치를 이해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김정치, 그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3김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3김정치를 하나의 연구단위로 묶어 재조명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12. “3당 합당과 한국 정당정치.”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1호, 171-193.
- 고성국. 1992.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맞선 라이벌 박정희 대 김대중.” 『역사비평』 통권19호, 180-181.
- 김성수. 2013. “한국 지역주의 현상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이해: 지역정당체제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0권 제3호, 82-85.
- 김성식. 1992. “14대 대통령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범야권의 과제.” 『동향과 전망』 통권 제18호, 219-238.
- 김영명. 2008. 『한국의 정치변동』. 서울: 을유문화사.
- 김용욱. 2004. 『한국정치론』. 서울: 오름.
- 김용철 외. 2018. 『현대한국정치의 이해』. 파주: 마인드맵.
- 김용호. 2016. “민중화 이후 한국 정당중치의 제도화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미래정치연구』 제6권 제1호, 10-14.
- 김진하. 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2호, 89-114.
- 김태룡. 1998. “김영삼 정부 시기의 정당개혁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논총』 제10권 제2호, 515-532.
- 문우진. 2016. “한국 선거경쟁에 있어서 이념 갈등의 지속과 변화: 15대 대선 이후 통합자료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3호, 40-42.
- 민준기. 2007. “김대중 정부의 개혁평가.” 『아태연구』 제14권 제1호, 19-31.
- 박경미 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상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3호, 127-154.
- 박상훈. 2000. “민중화 이전의 선거와 지역주의.” 『아세아연구』 통권 제104호, 187.
- 송백석. 2006.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 분석 비판: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71호, 126-153.
- 쑤이페이·정태일. 2017. “한국의 정치변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2권 2호, 38-65.

- 이준한. 2013. “한국의 이념성향과 생애주기효과: 2007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 『정치정보연구』 제16권 2호, 17-18.
- 임성한. 1998. “김영삼 정부 주도하의 정치개혁법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37집, 35-57.
- 임혁백. 2011.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3김정치시대와 그 이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정관용. 1990. “3당 합당의 구조적 본질과 실천적 대안.” 『동향과 전망』 통권 제7호, 198-219.
- 정근하. 2017. “5·18민주화운동의 지역성 극복을 위한 방안연구: 학술논문 저자와 학술지 편중분포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1권 2호, 5-32.
- 정대화.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의 배경과 투표결과에 대한 해석.” 『동향과 전망』 통권 제37호, 56-63.
- 정상호. 1998. “제15대 대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동향과 전망』 통권 제48호, 93.
- 정영국. 1993. “지역주의와 선거전략: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2호, 33-60.
- 정주신. 2017a. “한국정당의 공천과동에 따른 선거결과 함의: 제20대 총선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1권 1호, 31-70.
- 정주신. 2017b. “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 통리주체국민회의·부마항쟁.” 『한국과 국제사회』 1권 2호, 33-84.
- 정진민·황아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2호, 115-134.
- 정태일. 2015.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효과.” 『한국동북아논총』 제20집 제3호, 296.
- 정태일·쑤이페이. 2017. “한국대통령의 집권위기에 나타난 헌법개정 정치동인 분석.” *Crisisonomy* 제13권 제9호, 178-179.
- 정태환. 2005. “김영삼 개혁정치의 성격과 정치적 동원.” 『한국학연구』 제23권(2005), 281-306.

- 정태환. 2009.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치: 모순과 한계.” 『한국학연구』 제31권, 387-416.
- 조현연. 1997. “15대 대통령선거와 ‘DJP 지역연합.’” 『동향과 전망』 통권 제33호, 103-131.
- 지충남. 2010.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와 영호남 지역주의: 엘리트 충원을 중심으로.” 『2010 대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77.
- 진영재·박준식. 2008. “한국정당통합 및 연합 유형과 선거결과와의 관계에서 특질: 1987년 민주화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132.
- 최한수. 1999. 『한국정당정치변동 I』. 서울: 세명서관.
- 현재호. 2004.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연합에 관한 연구: DJP연합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7권 1호, 147-17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투고일 : 2019년 2월 9일 · 심사일 : 2019년 2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3월 11일
---

\* 정태일은 충북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고대서양정치사상연구』, 『중세서양정치사상연구』, 『평화사상연구』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칸트 영구평화론의 정치철학적 조명,”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Korean Politics Before  
and After by Three Kim's Politics:  
Political Effects and Distortions**

Chung, Tae I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7, Korean politics was transformed into three Kim's politics by Kim Yeong-sam, Kim Dae-jung and Kim Jong-pil. Before the time of three Kim's politics, Korean politics lasted for one long term, but three Kim's politics made possible the peaceful regime change through political party integration and party coalition. The evaluation of three Kim's politics coexist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 positive political effects are diversification of political party composition and stabilization of regime change. Three Kim's politics transformed the political party composition of Korea from a two-party system to a multi-party system, made possible a peaceful regime change through the unification of three parties and the DJP coalition. However, the negative political distortions of three Kim's politics are the shortening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concentration of political ideology. In three Kim's politics, political party in Korea has a very short life due to the cre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re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parties. Conservatism and progressive tendencies related three Kim's politics were stabilized through Ye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Therefore, three Kim's politics means that the proportion of Korean politics is very high. Political effects and distortions derived from three Kim's politics have become a challenge for Korean politics to overcome.

**Key words** : Three Kim's Politics, Party Composition, Regime Change, Political Party Term, Political Ideology